故事成語

1. 刻舟求劍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뱃전에 빠뜨린 자리를 표시해 두었다가 배가 정박한 뒤에 칼을 찾으려 했다는 고사(故事)에서,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음의 비유.

2. 肝膽相照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사귐.

3. 改過遷善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 개과자신.
遷 옮길 천;

4. 蓋棺事始定

관 뚜껑을 덮고 난 뒤에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은 죽고 난 뒤에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5. 擧案齊眉

밥상을 눈썹 위로 받들어 올린다는 말로 아내가 남편을 정성을 다해 시중드는 것을 뜻한다.
擧 들 거;
案 책상 안, 앉을 때에 몸을 기대는 방석, 소반, 밥상
齊 가지런할 제; 가지런하다, 같다, 같게 하다, 갖추다, 다, 똑같이, 모두
眉 눈썹 미; 눈썹, 노인, 장수하여 눈썹이 긴 사람, 가, 가장자리

6. 鷄鳴狗盜

닭의 울음 소리를 잘 내고 개의 흉내를 잘 내어 좀도둑질을 하다. 즉,

점잖은 사람이 배워서는 안 될 천한 일,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季布一諾

계포가 한번 승낙하다. 즉 한번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다.

8. 股肱之臣

임금이 자신의 다리와 팔뚝처럼 소중히 여기는 신하라는 말로,
임금이 가장 믿고 중히 여기는 신하.
股 넓적다리 고;넓적다리, 정강이, 끝
肱 팔뚝 굉; 팔뚝

9. 鼓腹擊壤

배를 두드르고 땅을 치며 노래한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鼓 북 고; 북, 치다, 두드리다, 맥박
腹 배 복;배, 창자, 마음, 아이 배다, 앞쪽, 중앙부, 가운데, 두텁다, 안다
擊 부딪칠 격;부딪치다, 배나 수레가 질서 있게 나아가다, 거리끼다, 방해가 되다
壤 흙 양;
흙, 부드러운 흙, 땅, 토지, 경작지, 티끌

10. 高枕安眠

베개를 높이 해서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근심 없이 편안히 잘 지냄을 이르는 말.
枕 베개 침;
眠 잠잘 면; 잠자다, 조수(鳥獸)가 쉬다, 시들다, 지각이 없다, 모르다, 어지럽다

11. 曲學阿世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

阿 언덕 아;언덕, 구석, 산비탈

12. 管鮑之交

중국 춘추 시대의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의 사귐이 매우 친밀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다정한 교제를 일컬음.

管 피리 관; 피리, 대나무로 만든 악기의 총칭, 대롱

鮑 절인 어물 포; 절인 어물, 전복, 석결명(石決明), 갖바치, 혁공(革工)

13. 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는 것을 일컬음.

刮 깎을 괄;깎다, 갈다, 닦다, 비비다

14. 膠柱鼓瑟

비파나 거문고의 기러기발을 아교로 붙여 놓으면 가락을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비유해서 하는 말.

膠 아교 교; 아교, 아교로 붙이다, 끈끈하다

柱 기둥 주;기둥, 기러기발,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의 줄 밑에 괴어 소리를 고르게 함, 줄기

鼓 북 고; 북, 치다, 두드리다, 맥박

瑟 큰 거문고 슬; 큰 거문고, 많은 모양, 엄숙하다

15. 狡兎死良狗烹

교활한 토끼가 잡히면 충실한 사냥개가 삶겨져 먹힌다는 말로,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처단해 버린다는 뜻이다.

狡 교활할 교; 교활하다, 간교하다, 빠르다, 미치다

烹 烹 삶을 팽; 삶다, 삶아 죽이다, 익힌 음식

16. 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짐을 이르는 말.
蜜 꿀 밀; 꿀, 벌꿀, 명충(螟蟲)의 알

17. 九牛一毛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

18. 君子三樂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둘째 즐거움이며,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셋째 즐거움이다.

19. 捲土重來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찾아온다는 말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분발하여 세력과 힘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捲 말 권; 말다, 감아 말다, 걷다, 힘쓰다, 힘써 일하는 모양, 주먹

20. 琴瑟相和

거문고의 음률이 서로 잘 화합하다. 부부 사이가 좋다는 뜻으로 쓰인다.
琴 거문고 금; 거문고
瑟 큰 거문고 슬;큰 거문고, 많은 모양, 엄숙하다

21. 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騎 말 탈 기;말을 타다, 걸터앉다, 기병(騎兵), 말 탄 군사

22. 奇貨可居

기이한 보화를 차지하다. 즉, 진기한 물건을 사두면 나중에 큰 이익을 볼 만큼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말

奇 기이할 기; 기이하다, 뛰어나다, 갑자기
貨 재화 화; 재화, 물품, 뇌물을 주다
可 옳을 가; ㅁ-총5획; [kě,kè]
居 있을 거; 있다, 살다, 거주하다, 앉다, 차지하다

23. 暖衣飽食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음. 곧 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풍요롭다는 뜻
--------• 우리의 생활은 ~의 연속이었다.
暖 따뜻할 난; 따뜻하다, 따뜻하게 하다, 따뜻해지다
飽 배불리 먹을 포 ,물릴 포; 물리다, 싫증이 나다, 배부르다, 가득 차다, 만족하다, 물리

24. 難兄難弟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의 낫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움의 비유.

25. 伯仲之勢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백중세.

26. 惑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惑 미혹할 혹; 미혹하다, 의심하다, 미혹되게 하다, 정신이 헷갈리게 하다
誣 무고할 무; 무고하다, 사실을 굽혀 말하다, 깔보다, 업신여기다, 법을 굽히다

27. 南柯一夢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의 밑에서 꾼 꿈이란 말로,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남가지몽(南柯之夢).
柯 자루 가; 자루, 도끼자루, 줄기, 초목의 줄기, 나뭇가지

28. 濫觴

술잔이 넘치다. 즉 큰 배를 띄우는 강물도 그 시작은 겨우 술잔이 넘칠 정도의 작은 물이라는 말로 일의 시초, 근원을 말한다.

濫 퍼질 남{람}; 퍼지다, 넘치다, 함부로 하다

觴 잔 상; 잔, 술잔의 총칭, 잔질하다, 술잔을 남에게 돌리다

29. 南風不競

남방 지역의 풍악은 경쟁력이 없다는 말로, 기세를 떨치지 못할 때를 비유하는 말이다.

競 겨룰 경; 겨루다, 나아가다, 향하여 가다

30. 囊中之錐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

囊 주머니 낭; 주머니, 주머니에 넣다, 불알

錐 송곳 추; 송곳, 작은 구멍을 뚫는 연장, 바늘, 작은 화살

31. 毛遂自薦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함.

32. 老馬之智

늙은 말의 지혜라는 말로, 아무리 하찮은 인간이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33. 斷機之敎

짜던 베틀의 옷감을 끊어 버리다. 즉 일의 도중에 그만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34. 螳螂拒轍

제 분수를 모르고 강적에게 반항함《'장자'에 나오는 말로, 중국 제나라의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함》. 당랑지부.

螳 사마귀 당; 사마귀

螂 사마귀 랑{낭}; 사마귀, 쇠똥구리, 蜋과 同字

拒 막을 거; 막다, 거부하다, 막아 지키다, 방어하다, 겨루다, 적대하다

轍 바퀴 자국 철;바퀴 자국, 흔적, 행적

35. 道不拾遺

길가에 떨어진 남의 물건은 줍지 않는다는 말로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잘 살고 있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路不拾遺

道 길 도; 辵-길, 이치, 근원, 기능, 방법, 사상, 인의(仁義), 덕행(德行), 기예, 정령(政令), , 행정(行程), 바둑.장기에서 行馬의 길, 통하다

拾 주울 습; 줍다, 칼집, 팔찌

遺 끼칠 유; 끼치다, 후세에 전하다, 잃다, 버리다

36. 道聽塗說

길에서 듣고 진흙길에서 말하다. 즉 헛소문을 그대로 믿고 곧바로 남에게 전한다는 뜻이다. 허황한 소문을 이르는 말이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塗 진흙 도; 진흙, 칠하다, 길

37. 讀書百遍義自見

책을 여러번 읽으면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무엇이든지 끈기있게 반복하다보면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見 : 볼 견, 드러날 현

38. 得隴望蜀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가 농(隴)나라를 평정한 후 다시 촉(蜀)나라까지 원했다는 고사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림의 비유.

隴 고개 이름 롱{농};
고개 이름, 한(漢)나라 천수군(天水郡)의 고개 이름, 땅 이름, 산 이름
望 바랄 망; 바라다, 기대하다, 원하다, 멀리 내다보다, 향하여 보다, 기다리다, 우러러보다
蜀 나라 이름 촉;나라 이름, 중국 삼국 시대에 유비가 세운 나라로 위에게 멸망하였다, 땅 이름, 노나라의 땅, 쓰촨 성(四川省)의 약칭

39. 登泰山而小天下
태산에 올라서야 비로소 천하가 작은 것을 알게 된다. 즉 큰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사고나 행동의 폭이 넓음을 의미한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넓고 시원스러워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음을 말한다.

40. 馬耳東風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곧 흘려 버림을 이르는 말. 牛耳讀經

41. 麥秀之嘆
보리이삭이 무성함을 한탄하다. 즉 지난 날의 화려했던 왕조의 멸망을 회상하며 탄식하는 말이다.

42. 孟母三遷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말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강한 교육열을 말한다.

43. 盲人摸象
눈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다. 즉, 사물의 일부만을 알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摸 찾을 모; 찾다, 더듬어 찾다, 잡다, 쥐다, 가지다, 베끼다, 본뜨다(摹)
象 코끼리 상; 코끼리, 상아(象牙), 모양, 그림

44. 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45. 明眸皓齒

눈동자가 맑고 이가 희다는 뜻으로, 미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明 밝을 명; 밝다, 밝히다, 밝게, 환하게

眸 눈동자 모; 눈동자, 눈, 자세히 보다

皓 흴 호; 희다, 깨끗하다, 밝다, 하늘

齒 이 치; 이, 음식을 씹는 기관, 어금니, 나이

46. 明哲保身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전함.

47. 武陵桃源

인간 속세와 동떨어진 별천지, 곧 평화롭고 조용한 이상적인 곳을 말한다.

48. 刎頸之交

목을 내건 교제 곧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

刎 목 벨 문; 목 베다, 자르다, 끊다, 쪼개다

頸 목 경; 목, 목덜미, 기물의 목 비슷한 부분, 멱, 목덜미의 앞부분

49. 門前成市

문 앞에 시장이 서다. 즉, 권력가 집 앞이 찾아드는 방문객들로 시장처럼 붐빈다는 뜻

50. 尾生之信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로, 신의가 굳음. 또는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

51. 傍若無人

주변에 사람이 없다. 즉 타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오만불손함을 말한다.

傍 곁 방; 곁, 방(傍), 성(姓)

若 같을 약, 같다, 너, 만일

52. 背水之陣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을 뜻한다.

53. 杯中蛇影

술잔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란 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을 말한다.

54. 白駒之過隙

흰 망아지가 문틈으로 지나가다.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駒 망아지 구; 망아지, 말, 성숙한 말, 젊은이

隙 : 틈 극

55. 伯樂一顧

백락이 한번 생각하다. 또는 백락의 눈에 띄다. 즉 명마가 백락의 눈에 띄어 그 재능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재능이 현자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顧 돌아볼 고; 돌아보다, 사방을 둘러보다, 응시하다, 마음에 새기다, 관찰하다, 반성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찾다, 방문하다.

56. 白眉

〔중국 촉한(蜀漢)의 마량(馬良)의 다섯 형제가 다 재주가 있었는데 그중에도 눈썹 속에 흰 털이 난 마량이 가장 뛰어났다는 고사에서〕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물건의 비유.

眉 눈썹 미; 눈썹, 노인, 장수하여 눈썹이 긴 사람, 가, 가장자리

57. 泣斬馬謖

〔중국 촉(蜀)나라 제갈량(諸葛亮)이, 마속이 군령을 어겨 가정(街亭) 싸움에서 패했을 때, 울면서 그를 참형에 처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의 비유.

泣 울 읍; 울다, 울음, 눈물, 근심, 근심하다

斬 벨 참; 베다, 끊어지다, 매우, 가장, 심히

馬 말 마; 말, 산가지, 투호(投壺)를 할 때 득점을 세는 물건, 크다, 큰 것의 비유

謖 일어날 속; 일어나다, 일어서다, 높이 빼어난 모양, 바람이 부는 모양

58. 伯牙絶絃

백아가 거문고의 줄을 끊다. 즉 백아가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해 주는 친구가 죽자 거문고 줄을 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자기를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伯 맏 백; 맏, 우두머리,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

牙 어금니 아; 어금니, 송곳니, 이의 총칭, 무기, 병기, 도와서 지켜 주는 물건, 깨물다

絶 끊을 절; 끊다, 막다, 그만두다, 가로막다, 사이를 띄우다, 없애다, 버리다, 멸망시키다, 끊어지다, 물이 마르다, 망하다, 숨이 그치다, 없다, 떨어지다, 말라 죽다, 건너다, 곧바로 가다

絃 악기 줄 현; 악기 줄, 거문고.비파 등의 줄, 새끼(索)

59. 焚書坑儒

〔역〕 중국의 진시황이 민간의 서적을 불사르고 수많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과도한 독재 행위를 비유한다.

焚 불사를 분; 불사르다, 타다, 불을 놓아 사냥을 하다, 화형(火刑)하다

坑 구덩이 갱;구덩이, 구덩이에 묻다

儒 선비 유; 선비, 유학, 부드럽다

60. 不入虎穴不得虎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는 말로, 모험을 하지 않으면 큰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61. 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중국 초(楚)나라 항우가 한(漢)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었던 고사에서 유래함》.

62. 私淑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문을 본으로 삼고 배움.

--------• ~하는 작가.

私 사사 사; 사사, 자기, 개인, 불공평, 사곡(邪曲), 사사로운 욕망, 비밀, 사사로이 하다, 홀로, 마음속으로, 은밀히

淑 맑을 숙; 맑다, 맑고 깊다, 착하다, 정숙하다, 사모하다, 경모하다

63. 四海兄弟

사해는 온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온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와 같다는 뜻으로, 친밀함을 이르는 말. 사해동포.

64. 殺身成仁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룸. 즉,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림.

65. 三顧草廬

중국 삼국 시대에, 유비가 제갈량의 초려를 세 번이나 방문하여 마침내 그를 군사(軍師)로 삼았다는 데서,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는 말. 초려삼고.

顧 돌아볼 고; 돌아보다, 사방을 둘러보다, 응시하다, 마음에 새기다, 관찰하다, 반성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찾다, 방문하다

草 풀 초; 풀, 초원(草原), 거친 풀, 잡초

廬 오두막집 려{여};오두막집, 주막, 여인숙, 임시 거처

66. 喪家之狗

상가의 개, 즉 주인을 잃고 상가를 전전하는 개를 말한다. 지칠 대로 지쳐 수척하고 초라한 사람을 빈정거리는 말이다.

67. 塞翁之馬

모든 것은 변화가 많아서 인생의 吉凶禍福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
--------• 인간 만사 ~.

68. 生寄死歸

삶은 더불어 살고, 죽음은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말. 인간의 삶은 이세상에 잠시 몸을 맡겨 머무는 것이고, 죽는 것은 다시 되돌아 간다는 뜻이다.

-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인간은 그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므로 생에 집착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생기사귀'라는 말을 쓴다.

寄 : 부칠 기, 부탁할 기, 의탁하다

69. 歲月不待人

흘러가는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즉 젊었을 때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학문이나 일에 힘쓰라는 뜻이 담긴 말이다.

70. 宋襄之仁

송나라 양공이 베푼 자애라는 뜻. 쓸데없는 동정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하여 사용한다.

- 적과의 싸움 등 위급한 처지에서 인의나 도덕을 내세우는 것은 우매한 짓이라는 말이다.

襄 : 도울 양

71. 首丘初心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 즉 근본을 잊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丘 언덕 구; 언덕, 무덤, 모으다.　狐死首丘

72. 首鼠兩端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나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뜻으로,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결정짓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이르는 말.

73. 漱石枕流

돌로 양치질 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는 말로, 남에게 지기 싫어서 억지로 무리한 변명을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漱 양치질할 수; 양치질 하다, 씻다, 개먹어 들어가다, 물이 언덕에 부딪치며 흐르다

74. 樹欲靜而風不止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원래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럴 수 없는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으로 평정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75. 風樹之嘆

효도하고자 할 때에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孝行)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76. 守株待兎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토끼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융통성 없는 행동을 가리킨다.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가만히 앉아서 일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77. 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78. 實事求是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진리를 구한다는 말. 즉 공상이나 막연한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사실을 이끌어 내는 태도를 말한다.

實 열매 실; 열매, 차다, 가득 차다, 익다, 곡식이 익다

事 일 사; 일, 일삼다, 전념하다, 정치

79. 雁書

기러기 편에 부친 편지. 곧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 雁信.

雁 기러기 안; 기러기, 거위, 가짜, 모조

80. 愛屋及烏

그 집을 사랑해서 그 집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까마귀마저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는 말과 같이 그와 관계있는 것에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뜻이다.

81. 良賈深藏若虛

영리한 장사꾼은 값진 물건을 깊이 감춰 두고 상점이 텅 빈 것처럼한다. 이는 선비와 학자가 지녀가 할 태도를 두루 말한 것으로 현인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賈 : 장사꾼 고, 가격 가

藏 : 감출 장

82. 羊頭狗肉

양의 머리와 개의 고기, 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겉으로는 선한 듯하나 속은 음흉한 행위나 표리부동한 얄팍한 술수를 가리킨다.

83. 梁上君子

대들보 위의 군자라는 말로,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천장의 쥐를 말할 때도 쓴다.

梁 : 들보 량

84. 良藥苦口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즉 간사한 말은 듣기에 부드럽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이다.

85. 漁父之利

어부의 이익. 즉 조개와 황새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어부가 힘들이지 않고 둘다 잡아 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본다는 뜻이다.

86. 餘桃之罪

먹던 복숭아를 준 죄라는 말로, 사랑을 받을 때는 용서가되다가 사랑이 식고 난 뒤 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애정과 증오의 변화를 뜻한다.

87. 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다.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억지로 하려 하거나, 허무맹랑한 욕심이나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을 비유한다.

88. 吳越同舟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같은 장소나 처지에 함께 놓임. 또는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함의 비유.

89. 屋上架屋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말로, 공연한 헛수고를 이중으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필요없는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架 : 시렁 가, 횃대

90. 玉石混淆

옥과 돌이 한데 뒤섞여 있다는 말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어서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에 사용하는 말이다.

混 섞을 혼; 섞다, 섞이다, 흐리다, 혼탁하다, 합하다, 맞추다

淆 뒤섞일 효; 뒤섞이다, 어지러워지다, 흐리다, 흐리게 하다

91. 溫故知新

옛 것을 익힘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다는 말로, 옛 것을 익혀 새것을 알아야 발전이 있다는 뜻이다.

92. 蝸牛角之爭

달팽이 뿔의 싸움이라는 말로,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우기는 행위를 뜻한다. 작은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립하는 것을 야유하는 말이다.

93. 臥薪嘗膽

섶에 누워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딤.

臥 엎드릴 와; 엎드리다, 엎드려 자다, 누워 자다, 거짓 자다, 넘어지다, 쉬다, 자리에 들다, 엎다, 그만두다, 잠자리

薪 섶나무 신; 섶나무, 땔나무, 풀, 잡초, 나무하다

嘗 맛볼 상; 맛보다, 시험 삼아, 시험하다, 일찍이

膽 쓸개 담; 쓸개, 담력, 마음, 충심(衷心)

94. 燎原之火

무서운 기세로 번져 가는 벌판의 불길이라는 말로, 세력이 막강하여 막을 수 없는 기세를 비유하는 말이다.

燎 뜰에 세운 횃불 료{요}; 뜰에 세운 횃불, 불을 놓다, 밝다, 비치다, 불붙다

原 근원 원; 근원, 들, 벌판, 용서하다

95. 牛角掛書

소뿔에 책을 건다. 즉 촌음을 아껴 독서에 열중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掛 걸 괘; 걸다, 걸어 놓다, 마음에 걸리다

96. 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기다. 즉 어떠한 난관이라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愚 어리석을 우;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마음

97. 泣斬馬謖

중국 촉(蜀)나라 제갈량(諸葛亮)이, 마속이 군령을 어겨 가정(街亭) 싸움에서 패했을 때, 울면서 그를 참형에 처하였다는 고사(故事)에서〕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의 비유.

泣 울 읍; 울다, 울음, 눈물, 근심, 근심하다

斬 벨 참; 베다, 끊어지다, 매우, 가장, 심히

謖 일어날 속;일어나다, 일어서다, 높이 빼어난 모양, 바람이 부는 모양

98. 李下不整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즉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느라 손을 올리면 과일을 따려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니 의심받을 만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99. 切磋琢磨

옥·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이나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

切 끊을 절; 끊다, 갈다, 문지르다, 바로잡다, 고치다

磋 갈 차; 갈다

琢 쫄 탁; 쪼다, 옥을 다듬다, 덕이나 기량을 닦다, 꾸미다, 선택하다

磨 갈 마; 갈다, 숫돌에 갈다, 문지르다

100. 井中之蛙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말로, 좁은 소견을 말한다. 우물 속의 개구리는 우물이 전 세계인 줄 안다. 그러나 우물 밖의 황하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바다는 그 보다 더 넓다. 井底之蛙

101. 糟糠之妻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가난하고 천할 때부터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

糟 전국 조; 전국, 거르지 아니한 술, 지게미, 성(姓)

糠 겨 강; 겨, 쌀겨, 매우 작은 것의 비유

102. 酒池肉林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호사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뜻한다.

103. 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즉 잘못된 일을 옳다고 우기는 것을 뜻한다.

104. 天高馬肥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이 썩 좋은 절기임을 일컫는 말.

--------• ~의 계절.

105. 千慮一失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 가운데는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

慮 생각할 려{여}; 생각하다, 꾀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106. 淸談

맑은 이야기. 즉 세속적인 이익이나 명예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허심탄회하고 무욕한 대화를 말한다. 맑고 깨끗하고 고상한 空理空論과 淸淨無爲한 이야기

107. 靑雲之志

푸른 구름의 뜻이라는 말로, 일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원대한 뜻을 비유하는 말이다.

108. 靑出於藍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 열심히 학문에 노력하면 나중에 스승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남을 비유한 말이다.

109. 寸鐵殺人

작은 쇳조각으로 사람을 죽이다. 즉 단 한마디의 말이나 글로써 상대방의 급소를 찔러 경각심을 주거나 감동을 줄 때 하는 말이다.

110. 春樹暮雲

봄의 나무, 해질녘의 구름이란 말로, 먼 곳에 있는 친구를 그리워 하는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111. 痴人說夢

어리석은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다. 즉 앞뒤가 맞지 않는 허튼 소리, 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즉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112. 他山之石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남의 잘못과 실수도 자신을 바로잡아 수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 ~으로 삼다.

113. 泰山北斗

태산과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 존경스러울 때 이르는 말이다.

114. 吐哺握髮

먹던 것을 뱉어 내고 감던 머리를 움켜 쥐고 쫓아 나간다는 말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우 정성을 다함을 뜻한다.
吐 토할 토; 토하다, 털어놓다, 드러내다, 버리다
哺 먹을 포; 먹다, 먹이다, 어린아이의 병명
握 쥘 악; 쥐다, 주먹, 손아귀, 수중
髮 : 터럭 발; 터럭, 머리털, 초목(草木), 길이의 단위

115. 推敲

시문을 지을 때 자구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침.
推 옮을 추; 밀 퇴, 옮다, 변천하다, 천거하다, 추천하다, 받들다
敲 두드릴 고; 두드리다, 똑똑 가볍게 두드리다, 매, 짤막한 회초리

116. 破竹之勢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당당한 기세.
--------• ~로 진격하다.

117. 風聲鶴唳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란 말로 겁에 질린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놀람을 가리키는 말.
唳 울 려{여}; 울다, 학이 울다, 새소리, 새가 울다

118. 邯鄲之夢

한단에서 꾼 꿈이란 말로, 인생의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가리킨다

119. 螢雪之功

반딧불이와 눈의 공이라는 말로, 반딧불이와 눈빛으로 글 읽는 것을 뜻한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입신양명했을 때 쓴다.

120. 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의 비유.
假 거짓 가; 거짓, 임시적, 빌다

121. 浩然之氣

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元氣).
② 도의에 뿌리를 박고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
③ 사물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 호기(浩氣).
浩 클 호;크다, 물이 넓고 넓게 흐르는 모양, 광대한 모양
然 그러할 연; 그러하다, 그렇다고 여기다, 그리하여

122. 畵龍點睛

용을 그린 후 눈동자를 그려 넣다. 즉 일을 마지막으로 손질을 해서 완성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123. 胡蝶之夢

호랑나비의 꿈이란 말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날아다녔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사물과 사람의 구분을 잃을 정도의 물아의 구별이 없는 것이나 만물일체를 말한다.
胡 : 오랑캐 호, 蝶 : 나비 접

124. 傾國之色

나라가 기울어지게 할 정도로 절세 미인을 말한다. 아름다운 여자로 인하여 나라의 기강이 혼란스러워진다는 뜻이다. 絶世美人

125. 鷄肋

닭의 갈비, 즉 먹자니 별로 먹을 것이 없고, 그냥 버리자니 아깝다는 뜻으로 크게 쓸모는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126. 古稀

사람의 나이 일흔을 이르는 말. 예로부터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다.

弱冠 : 20 세 , 不惑 : 40 세, 知命 : 50 세, 耳順 : 60 세,
古稀 : 70 세, 稀壽 : 77 세, 米壽 : 88 세, 白壽 : 99 세

127. 空中樓閣

공중에 떠 있는 누각이라는 말로, 현실성이 없는 일이나 글을 가리킨다. 진실이 없는 헛된 망상이나 가공의 것으로 신기루 같은 것을 말한다.

128. 巧言令色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

巧 공교할 교;공교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기교
令 영 령{영}; 영, 우두머리, 좋다
色 빛 색; 빛, 빛깔, 얼굴빛, 색채, 윤, 광택, 모양, 상태, 기색, 형상, 용모의 예쁨, 갈래, 종류, 여색, 정욕

129. 口尙乳臭

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하는 짓이 아직 어림을 일컫는 말. 즉 경험이 없어 언행이 어설픈 것을 말한다.

尙 오히려 상; 오히려, 바라다, 바라건대, 높다, 높이다, 숭상하다
乳 젖 유; 젖, 젖을 먹이다, 낳다
臭 냄새 취; 냄새, 후각을 통한 감각, 냄새나다, 나쁜 소문

130. 群鷄一鶴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을 이름. 계군일학.

131. 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보탠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함의 비유.

132. 錦衣夜行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는 말로, 아무 보람 없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立身揚名하고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비유하기도 한다.

133. 杞憂

〔옛날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 열자(列子)〕 쓸데없는 걱정을 함. 또는 그 걱정.

--------• ~에 그치다

--------• ~에 불과하다

--------• 그 걱정은 ~에 지나지 않았다.

杞 나무 이름 기; 나무 이름, 구기자나무, 냇버들, 갯버들, 고리버들, 나라 이름, 성(姓)

憂 근심할 우; 근심하다, 근심, 상(喪)

134. 老益壯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짐. 또는 그런 상태. 노당익장(老當益壯).

--------• ~을 과시하다.

益 더할 익;더하다, 증가, 느는 일, 유익하다

壯 씩씩할 장; 씩씩하다, 장하다, 기상이 굳세다, 성하다

135. 累卵之危

계란을 쌓아 올린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를 말한다. 매우 위급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累 묶을 누{루},{벌거벗을 라}; 묶다, 포개다, 층, 여러, 연하다, 누 끼치다, 동여매다, 새끼를 찾는 어미 소, 수컷을 좇는 암컷의 새끼, 늘다, 늘리다

136. 多岐亡羊

〔달아난 양을 찾는데 길이 여러 갈래로 갈려 양을 잃었다는 뜻〕
① 학문의 길이 다방면으로 갈려 진리를 얻기 어려움.
② 방침이 많아 도리어 갈 바를 모름.
岐 갈림길 기; 갈림길, 자라나는 모양, 지각이 드는 모양, 날아가는 모양

137. 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즉 감당할 능력만 있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다.

138. 斷末魔

①〔불〕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 ~의 비명을 지르다.
② 죽을 때. 임종.
斷 끊을 단; 끊다, 절단하다, 쪼개다, 가르다, 근절시키다
末 끝 말; 끝, 나무 끝, 서 있는 물건의 꼭대기, 지엽(枝葉),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신하, 백성
魔 마귀 마; 마귀, 악귀, 마술, 요술, 인, 인 박이다, 한 가지 일에 열중하여 그 본성을 잃는 일

139. 斷腸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 ~의 이별.
腸 창자 장; 창자, 마음, 충심, 자세하다

140. 大器晩成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
--------• 입지전적 인물에 ~형이 많다.

141. 桃園結義

의형제를 맺음《'삼국지연의'에 나오는 말로, 중국 촉나라의 유비·관우·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었다는 고사에서 유래》.

142. 塗炭之苦

진흙의 수렁이나 불구덩 속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을 나타내는 말로 생활 형편이 몹시 곤란함을 말한다.
塗 진흙 도; 진흙, 칠하다, 길
炭 숯 탄; 숯, 재, 석탄

143. 同病相憐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
憐 불쌍히 여길 련{연};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생각하다, 어여삐 여기다, 사랑하다

144. 登龍門

용문(龍門)은 황허(黃河) 강 상류에 있는 급류로, 잉어가 거기에 올라가서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입신출세에 연결되는 어려운 관문. 또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의 비유.
--------• 문단의 ~
--------• 그 콩쿠르는 악단(樂壇)으로의 ~이다.

145. 莫逆之友

허물없이 아주 친한 벗. 막역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는 말이다.
莫 없을 막{저물 모,고요할 맥}; 없다, 저물다, 고요하다, 말다, 정하다, 해질 무렵, 저녁, 크다, 꾀하다, 무성하다, 엷다, 늦다

146. 明鏡止水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이란 뜻으로, 맑고 고요한 심경을 이름. 즉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147. 矛盾

① 말이나 행동 또는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 ~에 빠지다

--------• 체제의 ~을 드러내다

--------• 네 말은 앞뒤가 ~된다.

②〔철〕 두 판단이 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없이 서로 대립하여 양립하지 못하는 관계《유(有)와 무(無), 동(動)과 정(靜) 따위》.

矛 창 모; 창, 자루가 긴 창

盾 방패 순; 방패, 피하다, 숨다, 벼슬 이름

148. 彌縫策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대책.

--------• 임시방편의 ~

--------• ~에 머물다

--------• 그런 ~은 통하지 않는다.

彌 두루 미; 두루, 널리, 오래다, 그치다

縫 꿰맬 봉; 꿰매다, 깁다, 붙이다, 솔기, 꿰맨 줄

策 채찍 책; 채찍, 채찍질하다, 지팡이

149. 拔本塞源

뿌리를 완전히 뽑아 없애고 근원을 덮어 막는다. 잘못된 점을 근본적으로 고쳐 해결한다는 뜻

拔 뺄 발; 빼다, 쳐서 빼앗다, 공략하다, 빼어나다, 특출하다

塞 막힐 색{변방 새}; 막히다, 변방, 요새, 굿, 주사위, 사이가 뜨다, 거리를 띄우다, 성채

源 근원 원; 근원,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모양, 사물이 잇닿은 모양

150. 百年河淸

중국의 황허(黃河) 강이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151. 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직접 보거나 경험함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른다.

152. 白眼視

〔중국 진(晉)나라 완적(阮籍)이 반갑지 않은 사람은 백안(白眼)으로 대하고, 반가운 사람은 청안(靑眼)으로 대하였다는 고사에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하여 흘겨봄.

--------• 사람을 ~하다.

↔청안시.

153. 不夜城

밤이 오지 않는 성. 즉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번화하고, 활기찬 상태를 비유한 말.

154. 鵬程萬里

① 앞길이 매우 멀고도 멂.

② '전도가 양양한 장래'를 비유한 말.

--------• ~의 원대한 꿈.

鵬 붕새 붕; 붕새, 크기가 수천 리에 달하며 한번에 구만리를 난다는 상상의 새

程 단위 정; 길이의 단위, 도량형의 계량기, 법, 법도

155. 髀肉之嘆

살이 찌는 것을 탄식한다. 즉 무사가 말을 타고 달릴 기회가 없어 허벅지에 살만 찐다는 뜻으로, 자신의 재주를 발휘할 기회가 없음을 탄식하는 말이다.

脾 : 허벅다리 비

156. 似而非

옳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즉 진짜인 듯하나 실제로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한다.
공자는 본성이 仁義에 뿌리박지 못하고, 겉만 번드르하며 처세술에만 능한 사이비 선비를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며 미워했다.

157. 蛇足

뱀의 발. 즉 쓸데없는 말이나 공연한 행동으로 일을 그르칠 때에 비유하는 말이다. '화사첨족(畫蛇添足)'의 준말.
--------• ~을 달다(붙이다).

158. 三十六計走爲上策

36가지 계책 중에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란 말. 즉 불리하면 도망쳤다가 후일을 기약한다는 계략이다.

159. 相思病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여 생기는 마음의 병을 말한다.

160. 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이 덧없이 변천함이 심함을 비유하는 말. 벽해상전. 상전창해. 창상(滄桑).
碧 푸를 벽; 푸르다, 푸른 옥돌産)이 풍부한 모양

161. 水魚之交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162. 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는다는 말로 확실히 모르면서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알아내려 하거나 찾으려는 것을 비유한다.
暗 어두울 암; 어둡다, 주위가 어둡다, 사리에 어둡다, 밤, 어둠, 몰래, 남이 알지 못하게
摸 찾을 모; 찾다, 더듬어 찾다, 잡다, 쥐다, 가지다, 베끼다, 본뜨다(摹)
索 찾을 색 , 찾다, 동아줄, 노, 어질다, 다하다, 꼬다, 새끼 꼬다, 가리다, 선택하다

163. 五里霧中

오 리에 걸친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해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의 비유.
霧 안개 무; 안개, 어둡다, 가볍고 잚의 비유

164. 五十步百步

외견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말. 오십보소백보.
--------• 60등이나 61등은 ~이다.

165. 烏合之卒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이 질서와 규칙이 없는 군중을 일컫는다. 즉 어중이떠중이가 모여 규율도 통일성도 없는 무리를 말한다. 오합지중(烏合之衆).
--------• ~에 불과하다.

166. 完璧

흠 하나 없는 귀한 화씨벽이란 구슬에서 유래된 말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완전무결한 것으로 온전히 보전한다는 뜻도 된다.
璧 : 구슬 벽, 둥근 옥 벽

167. 龍頭蛇尾

용의 머리애 뱀의 꼬리라는 말로, 처음 시작은 아주 그럴 듯하게 거창하

게 보였으나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말한다.

168. 有備無患

사건이나 병마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걱정이 없다는 말이다.

--------• ~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다.

169. 以心傳心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즉 어떤 뜻을 말이나 글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는 것을 말한다.

170. 一刻千金

매우 짧은 시간도 천금같이 귀중함《좋은 계절 등에 씀》.

즉 시간은 천금의 가치가 될만큼 귀한 것이니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다.

171. 一擧兩得

한 번 움직여 두 개를 얻다. 즉 꿩먹고 알 먹기, 또는 一石二鳥와 같은 뜻이다.

擧 : 들 거

172. 一網打盡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잡음.

--------• 마약 밀매단을 ~하다.

網 그물 망; 그물, 날과 씨가 빗겨 엇갈리는 무늬, 규칙, 법

打 칠 타;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 및, 와(과), 어떤 동작을 함을 뜻하는 접두어

盡 다될 진; 다되다, 비다, 줄다, 없어지다, 끝나다, 그치다, 죽다, 다하다, 한도에 이르다, 죄다 보이다, 맡기다, 몰살하다, 정성을 다하다

173. 戰戰兢兢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함.

--------• 비밀이 탄로날까 봐 ~하면서 지냈다.

戰 싸울 전; 싸우다, 싸움, 전쟁, 두려워하다, 두려워서 떨다
兢 삼갈 긍;삼가다, 두려워하다, 굳다, 굳세다

174. 朝三暮四

〔중국 송(宋)나라 때, 원숭이들에게 상수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어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준다고 하자 좋아하였다는 우화(寓話)에서 나온 말:열자(列子)에 나오는 말〕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175. 竹馬故友

대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뜻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며 친하게 지내 온 벗. 죽마구우(舊友).

176. 衆寡不敵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대적할 수 없다. 즉 차이가 워낙 커서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寡 적을 과; 적다, 나, 임금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겸칭, 주상(主上), 자기가 섬기는 임금을, 다른 나라에 대하여 일컫는 겸칭
敵 원수 적; 원수, 상대방, 대등하다, 맞서다

177. 衆口難防

뭇사람의 말을 이루 다 막기가 어렵다는 뜻. 즉 여러 사람의 각기 다른 주장을 한꺼번에 막기가 어렵다는 뜻.
--------• ~으로 떠들어 대다.
防 둑 방; 둑, 막다, 말리다, 대비하다, 방호하다, 덮다, 가리다, 수비, 방비

178. 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알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知彼知己 百戰百勝

179. 千里眼

천리를 내다 볼 수 있는 눈, 눈으로 보지 않고도 세상사를 꿰뚫어 보거나 먼곳의 일을 훤히 알고 있다는 뜻이다.

180. 天衣無縫

① 하늘의 직녀가 짜 입은 옷은 솔기가 없다는 뜻으로, 시문(詩文)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을 이름.
② 완전무결해 흠이 없음을 이르는 말.
縫 꿰맬 봉; 꿰매다, 깁다, 붙이다, 솔기, 꿰맨 줄

181. 鐵面皮

철판으로 된 얼굴, 즉 부끄러움이 없고 뻔뻔스런 사람, 또는 파렴치하고 厚顔無恥한 사람을 일컫는다.
--------• 저런 ~를 다 보았나.

182. 靑天霹靂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란 뜻으로, 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갑자기 생긴 큰 사건의 비유. 驚天動地
--------• ~의 소식
--------• 이게 무슨 ~ 같은 말이냐.
霹 벼락 벽; 벼락, 천둥, 뇌신(雷神), 벼락이 떨어지다, 낙뢰하다
靂 벼락 력{역}; 벼락, 천둥

183. 紅一點

① 여럿 가운데 오직 하나 이채를 띠는 것의 비유.
② 많은 남자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여자.
↔ 靑一點.

184. 後生可畏

뒤에 오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만하다. 즉, 젊은 후배들이 선인의 가르침을 배워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말이다.

畏 : 두려울 외

185. 街談巷說
항간에 떠도는 근거없는 소문

186. 苛斂誅求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 ~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다.
苛 매울 가;맵다, 사납다, 잘다, 자세하다, 번거롭다
斂 거둘 렴{염}; 거두다, 긁어모으다,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다, 넣다, 저장하다, 숨다, 숨기려고 그만두다
誅 벨 주; 베다, 죄인을 죽이다, 치다, 적을 토벌하다, 족살(族殺)하다
求 구할 구; 구하다, 필요한 것을 찾다, 청하다, 묻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187. 佳人薄命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음《소식(蘇軾)이 지은 시에서 유래함》.
美人薄命.

188.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
猛 : 사나울 맹

189. 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됨을 말함

190. 刻骨難忘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않음.

191. 渴而穿井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다는 뜻,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서둘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

192. 甘言利說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이란 뜻으로, 여러 가지로 이로운 조건으로 남을 꾀는 것.

193. 蓋世之才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
蓋 덮을 개;덮다, 덮어씌우다, 덮개, 이엉덮개, 뚜껑, 용기의 아가리 덮개

194. 去頭截尾

① 머리와 꼬리를 자름.
② 요점만 간단히 말함.
截 끊을 절; 끊다, 말을 잘하는 모양, 다스리다, 정제(整齊)하다

195. 居安思危

편안하게 살면서도 늘 위험할 때를 생각함

196. 桀犬吠堯

폭군이었던 桀왕이 기른 개는 덕이 많았던 堯임금을 보아도 마구 짖는다는 뜻으로 우직하여 충성을 다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는 말.
桀 홰 걸; 홰, 닭이 올라 앉게 닭장에 가로질러 놓는 막대기, 뛰어나다, 빼어나다, 메다, 들다
吠 짖을 폐;짖다, 개가 짖다
堯 요임금 요;요임금, 높다, 멀다

197. 格物致知

<대학>에 나온 말로 사물의 이치를 알아 궁극적인 지식을 체득하는 것을 말함.
格 바로잡을 격; 바로잡다, 바루다, 겨루다, 대적하다, 치다, 때리다

物 만물 물; 만물, 일, 무리, 종류
致 보낼 치; 보내다, 전송해 보내다, 돌려 바치다, 바치다, 내던지다, 맡기다, 전하다, 끌어들이다, 부르다, 끝까지 다하다, 궁구하다, 힘쓰다, 정성스레 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知 알 지; 알다, 깨닫다, 느끼다, 분별하다, 기억하다, 들어서 알다, 보아서 알다, 사귀다, 나타나다, 다스리다

198. 乾坤一色
천지가 온통 같은 빛깔임

199. 隔世之感
다른 세대를 만난 것처럼 몹시 달라진 느낌. 격세감.
隔 사이 뜰 격; 사이가 뜨다, 또 사이를 떼다, 멀어지다, 나누다, 등한히 하다, 가리다, 숨기다, 거리, 치다(擊)

200. 隔靴搔癢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이 차지 않음을 이르는 말.
격화파양(隔靴爬癢).
隔 사이 뜰 격; 사이가 뜨다, 또 사이를 떼다, 멀어지다, 나누다, 등한히 하다, 가리다, 숨기다, 거리, 치다(擊)
靴 신 화; 신, 가죽신
搔 긁을 소; 긁다, 손톱 따위로 긁다, 마음이 움직이다, 떠들다(騷)
癢 가려울 양; 가렵다, 근지럽다, 근질거리다, 넓다

201. 牽强附會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치에 맞도록 함

202. 犬馬之勞
나라에 충성을 다할 때, 신하가 자신의 노력을 겸손히 낮추어 쓰는 말

203. 見蚊拔劍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에 너무 크게 성내어 덤빔.

蚊 모기 문; 모기

拔 뺄 발; 빼다, 쳐서 빼앗다, 공략하다, 빼어나다, 특출하다

204. 見物生心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205. 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대단히 사이가 나쁜 관계.

206. 見危授命

나라가 위태로움을 당하여 자기 목숨을 나라에 바침

207. 堅忍不拔

굳게 참아서 마음을 뺏기지 않음.

208. 犬免之爭

개와 토끼가 서로 다투다가 둘이 다 지쳐 죽자 농부가 주워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漁父之利와 같은 뜻

209. 結者解之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

210. 輕擧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경동(輕動).

211. 傾山釣水

산에서 밭을 갈고 물에서 고기를 낚음. 즉 속세를 떠난 마음을 일컬음

212. 經世濟民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의 고생을 살펴 구제함

213. 驚天動地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함

214. 鷄口牛後

소의 꼬리보다는 닭의 부리가 되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뜻.

215. 鷄卵有骨

달걀에도 뼈가 있다는 것으로 운수 나쁜 사람은 하는 일마다 걸리는 게 많음을 비유

216. 孤軍奮鬪

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군대가 많은 수의 적군과 용감하게 잘 싸움.

--------• ~를 벌이다

--------• ~ 끝에 사지(死地)에서 생환하다.

奮 떨칠 분; 떨치다, 흔들리다, 분격하다, 성내다

217. 高大廣室

굉장이 크고 좋은 집을 말함

218. 膏粱珍味

기름진 고기와 좋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膏 살찔 고;찌다, 살진 살, 기름진 땅
粱 기장 량{양};기장, 기장밥, 쓿은 곡식

219. 孤立無援
고립되어 구원받을 데가 없다는 뜻

220. 姑息之計
일시적으로 변통하는 꾀로, 일시적으로 편안하고자 생각해 낸 계책

221. 孤掌難鳴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음을 뜻함.

222. 苦盡甘來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223. 骨肉相殘
가까운 친척끼리 해치고 죽이고 하는 것을 말함.
殘 : 해칠 잔

224. 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인생에 있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고한 말

225. 空山明月
① 사람이 없는 적적한 산에 외로이 비치는 밝은 달.
② 산과 달을 그린 화투짝의 하나.
③ '대머리'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226. 公平無私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227. 公虧一簣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산을 쌓지 못했다는 뜻으로 힘들게 벌인 일을 한 가지가 모자라 마지막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
虧 이지러질 휴; 이지러지다, 줄다, 덕택으로
簣 : 삼태기 궤

228. 敎外別傳
〔불〕 선종(禪宗)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

229. 狡免三窟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나 가지고 있어, 만약의 경우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
狡 교활할 교; 교활하다, 간교하다, 빠르다, 미치다
窟 굴 굴; 굴, 움, 사람이 모이는 곳

230. 過猶不及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과불급(過不及).

231. 九曲肝腸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이나 시름이 쌓인 마음속의 비유.
♣ 구곡간장을 녹이다【관용구】몹시 놀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애를 태우게 해서 간장이 온통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만들다.
♣ 구곡간장이 녹다【관용구】몹시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애가 타서 간장

이 온통 녹아 없어지는 것 같다.
肝 간 간; 간, 간장, 정성, 충정
腸 창자 장; 창자, 마음, 충심, 자세하다

232. 狗尾續貂

개 꼬리로 담비 꼬리를 대신 잇는다는 말로 처음엔 좋게 시작했으나 나중엔 되는대로 끝맺음을 말함.
① 벼슬을 함부로 줌.
② 훌륭한 것에 하찮은 것이 뒤를 이음.
續 이을 속; 잇다, 이어지다, 뒤를 잇다
貂 담비 초; 담비, 족제빗과에 딸린 동물

233. 九死一生

(주로 '구사일생으로'의 꼴로 쓰여)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백사일생. 십생구사.

234. 九折羊腸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로, 꼬불꼬불하고 험한 산길을 일컫는 말.

235. 九重宮闕

문이 겹겹이 달린 깊은 대궐. 구중심처.
闕 대궐 궐; 대궐, 궁문(宮門)의 양옆에 베푼 두 개의 대(臺), 문(門)

236. 口禍之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기초이므로 입조심하라는 말

237. 國士無雙

나라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인물을 뜻함

238. 君師父一體
임금·스승·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뜻.

239. 窮餘之策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 궁여일책.

240. 勸善懲惡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241. 克己復禮
개인의 욕망을 극복하고 예의를 지킴

242. 近墨者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사귀면 물들기 쉽다는 말.

243. 金科玉條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기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나 규정.
--------• 근면과 절약을 ~로 삼다.

244. 金蘭之交
벗 사이의 깊은 우정을 말한다. 두 사람의 마음을 합치면 견고한 금이라도 단절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진정한 사귐을 향기로운 난초에 비유한 것이다.

245. 金城湯池
끓어오르는 연못으로 둘러싸인 성이란 뜻으로 방비가 아주 철저할 때 쓰는 말.

246. 錦衣還鄕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
--------• 장원 급제하여 ~하다.

247. 金枝玉葉
왕의 자손, 또는 귀한 집안의 자손을 말한다.

248. 起死回生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
--------• ~하는 영약.

249. 南橘北枳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로 변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환경에 따라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된다는 뜻
橘 귤나무 귤; 귤나무, 귤
枳 탱자나무 지; 탱자나무, 호깨나무, 해치다, 땅 이름, 고을 이름

250. 落落長松
가지가 축축 늘어진 키가 큰 소나무

251. 落花流水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란 표현으로 저물어가는 봄날의 정경 혹은 남녀 간의 사모하는 정을 말함

252. 難攻不落
공격하기 힘들어 좀처럼 함락되지 않는 것을 말함

253. 男負女戴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모양을 말한다.

254. 南田北畓

남쪽에는 밭, 북쪽엔 논이란 뜻으로 논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

255. 內憂外患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

256. 內柔外剛

겉은 강하나 속은 약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성품을 말함, ↔ 外柔內剛

257. 路柳墻花

아무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길가의 버들과 담 밑의 꽃이라는 뜻으로, 창녀나 기생을 이름.

墻 담 장; 담, 경계, 사물을 나누어 놓은 칸막이, 관을 덮는 옷,

258. 怒蠅拔劍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또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웃는 말.

蠅 파리 승; 파리, 파리잡이거미, 돌아다니는 모양

拔 빨 발; 빼다, 쳐서 빼앗다, 공략하다, 빼어나다, 특출하다

259. 勞心焦思

애쓰면서 속을 태움

焦 : 애태울 초

260. 魯魚亥豕

글자를 구분 못하고 혼돈한다는 말

魯 : 미련할 노,

豕 : 돼지 시

261. 綠水靑山

푸른 물과 푸른 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뜻함

262. 綠陰芳草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여름철의 자연경관을 가리키는 말》.
芳 꽃다울 방; 꽃답다, 향기풀, 향기, 좋은 냄새, 명성

263. 綠衣紅裳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자의 고운 옷차림을 이르는 말.
裳 치마 상; 치마, 낮에 입는 옷,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양

264. 論功行賞

공적의 유무와 대소를 의논해 각각 알맞은 상을 내리는 것을 말함

265. 弄瓦之慶

딸을 낳은 경사. 농와지희(弄瓦之喜).
↔농장지경(弄璋之慶).
弄 희롱할 농{롱};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 제 마음대로 다루다

266. 凌遲處斬

머리, 몸통, 팔, 다리를 토막내 죽이던 옛 극형의 한 가지
凌 능가할 릉{능}; 능가하다, 깔보다, 범하다, 침범하다
遲 늦을 지; 늦다, 더디다, 게을리 하다
處 살 처; 살다, 머물러 있다, 남아서 지키다, 묵다, 쉬다, 마음을 두다, 거처하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집에 있다, 야(野)에 있다, 벼슬을 하지 않다, 두다, 자리 잡고 있다, 안정시키다, 저축하다
斬 벨 참; 베다, 끊어지다, 매우, 가장, 심히

267. 斷金之交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말한다.

268. 單刀直入

① 혼자서 칼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요점을 바로 말함을 이르는 말.

--------• ～으로 따져 묻다.

② 〔불〕 생각과 분별과 말에 거리끼지 않고 진실의 경계로 바로 들어감.

269. 簞食瓢飮

① 도시락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한 생활의 비유.

② 청빈한 생활.

簞 대광주리 단; 대광주리

食 밥 식; 밥, 먹을거리, 먹다, 갉다, 깨물다, 새김질하다, 식언하다, 녹봉을 받다, 식사

瓢 박 표; 박, 박으로 만든 그릇, 바가지, 표주박, 구기, 구기의 총칭

飮 마실 음; 마시다, 잔치, 주연, 음료

270. 丹脣皓齒

붉은 입술과 흰 이의 뜻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비유.

--------• 양귀비의 ～를 그 누가 따르랴.

271. 簞瓢陋巷

도시락과 표주박과 누추한 마을이란 뜻으로, 소박한 시골 살림 또는 청빈한 선비의 생활을 비유하는 말.

陋 좁을 누{루};좁다, 장소가 좁다, 견문이 좁고 적다, 낮다, 신분이 낮다, 키가 작다, 부피가 작다, 천하다, 미천하다

巷 거리 항; 거리, 마을 안에 있는 거리, 궁궐 안의 통로나 복도, 마을, 동네

272. 大驚失色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할 때를 말함

273. 大同小異

거의 같고 조금 다름. 서로 비슷비슷함.

274. 對牛彈琴

소를 앞에 두고 거문고를 연주한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도리를 설명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275. 大義滅親

큰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도 돌보지 않음.

大 큰 대; 大-총3획; [dà,dài]

크다, 넓다, 두루

276. 大義名分

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본분. 떳떳한 명목.

--------• ~을 지키다.

② 어떤 일을 꾀하는 데 내세우는 마땅한 구실이나 이유.

--------• ~을 내세우다

--------• ~ 없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77. 讀書亡羊

독서에 정신이 쏠려 기르는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마음이 딴데 쏠려 길을 잃는 것을 비유한 말

278. 讀書三昧

오직 책 읽기에만 골몰함.

--------• ~에 빠지다.

昧 새벽 매; 새벽, 동틀 무렵, 어둡다, 어두컴컴하다, 어리석다, 탐하다,

탐내다

279. 獨守空房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지냄. 독숙공방.

--------• ~의 설움.

280. 東家食西家宿

떠돌아다니며 이 집 저 집에서 얻어먹고 지냄. 또는 그런 사람.

281. 同價紅裳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같은 값이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282. 棟梁之材

한 집안이나 한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재.

棟 용마루 동;용마루, 마룻대, 주석(柱石), 중임을 맡거나 맡을 인물

梁 들보 량{양}; 들보, 징검다리, 다리, 교량

283. 同門修學

한 스승 밑에서 같이 배웠음을 뜻함

284. 東問西答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함. 또는 그 대답.

285. 東奔西走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님. 동치서주.

--------• ~ 애를 쓰다.

奔 달릴 분; 달리다, 달아나다, 패주하다, 예를 갖추지 않고 결혼하다

286. 同床異夢

같은 침상에 누워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

287. 杜門不出

집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 않음

杜 : 팥배나무 두; 팥배나무, 당리(棠梨), 막다, 닫다, 닫아걸다, 고대(古代)의 나라 이름

288. 得魚忘筌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을 잊어버린다는 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수단은 잊어버린다는 뜻

筌 통발 전; 통발, 물고기를 잡는 기구

289. 登高自卑

① 낮은 곳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듯이, 모든 일에 반드시 차례를 밟아야 함.

②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낮춤.

290. 燈下可親

등잔불을 가까이하여 독서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뜻으로, 가을철이 책 읽기에 적당한 계절임을 말할 때 쓴다.

291. 萬頃蒼波

한없이 넓고 푸른 바다나 호수의 물결.

頃 밭 넓이 단위 경;밭 넓이의 단위, 요사이, 근래, 기울다, 기울이다, 여자가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하다

蒼 푸를 창; 푸르다, 푸른 빛깔, 우거지다, 무성해지다, 늙다, 늙은 모양

292. 萬機親覽

 오지랖 넘게 하루 만가지 일을 직접 챙김.

293. 萬事亨通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

294. 萬事休矣

'모든 일이 헛수고로 돌아감'의 뜻.

295. 萬壽無疆

아무 탈 없이 오래 삶《건강과 장수를 빌 때 쓰는 말》. 만세무강.

--------•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疆 지경 강; 지경, 끝, 한계, 밭두둑

296. 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탄.

--------• ~의 감이 없지 않다.

297. 滿身瘡痍

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

--------• 맞아서 ~가 되다.

② 어떤 사물이 엉망이 됨.

--------• 가스 폭발로 그 일대가 ~가 되었다.

瘡 부스럼 창; 부스럼, 종기, 상처 내다, 상처

痍 상처 이; 상처, 상처 나다, 깎다, 베다, 머리를 깎다

298. 亡羊補牢

양을 잃고 양 우리를 보수함. 뒤늦게 잘못을 후회하고 고침

牢 우리 뢰{뇌}; 우리, 가축을 기르는 곳, 둘러싸다, 속에 넣다, 감옥

299. 亡羊之歎

갈림길에서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렵다는 말. 다기망양(多岐亡羊).

300. 望雲之情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망운지회(望雲之懷).

301. 盲龜遇木

눈먼 거북이 우연히 물에 뜬 나무를 만났다는 뜻으로 우연히 좋은 일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遇 만날 우;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뜻이 합치하다, 때를 만나다, 등용되다, 알현, 회합, 맞서다, 상대하다

302. 面張牛皮

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는 뜻으로, 몹시 뻔뻔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철면피.

張 베풀 장; 베풀다, 매다, 넓히다, 크게 하다

303. 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

304. 名實相符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符 부신 부; 부신(符信), 수결(手決), 상서(祥瑞), 길조

305. 明若觀火

불빛을 보는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것

若 같을 약; 같다, 너, 만일

306. 目不識丁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말, 글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을 비웃는 말

307. 目不忍見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함.

308. 猫頭縣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실행할 수 없는 공론을 자청한다는 말.

猫 고양이 묘; 고양이

縣 매달 현; 매달다, 줄로 목을 공중에 달다, 높이 걸다, 공포하다, 걸리다, 사이가 멀리 뜨다

鈴 방울 령{영}; 방울, 수레의 좌우를 가리는 휘장

309. 無骨好人

줏대가 없이 두루뭉술하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잘 맞추는 사람.

310. 無人之境

①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 무인경.

--------• 지평선만이 보이는 ~.

②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판.

--------• 마치 ~을 가듯 들판을 달리다.

311. 無爲徒食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먹기만 함.

--------• ~으로 날을 보내다.

徒 무리 도; 무리, 동아리, 걷다, 보병(步兵)

312. 文房四友

종이·붓·먹·벼루의 네 문방구. 문방사보(文房四寶). 사우(四友).

313. 聞一知十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미루어 앎.

314. 門前沃畓

집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논밭.

--------• 노름으로 ~을 다 날려 버렸다.

沃 물 댈 옥; 물 대다, 관개하다, 개발하다, 기름지다, 토지가 걸차다

315. 美辭麗句

아름다운 묘사로 좋게 꾸민 글귀를 뜻함

辭 말 사; 말, 논술, 하소연하다, 말하다

麗 고울 여{려};곱다, 우아하다, 짝, 짝짓다, 지나다, 통과하다

句 글귀 구; 글귀, 문장이 끊어지는 곳, 굽다, 구부러지다

316. 美聯邦

일이 잘못되기 전에 미리 예견하여 막는다는 뜻.

317. 拍掌大笑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 ~가 터지다.

拍 칠 박; 치다, 손으로 두드리다, 어루만지다, 박자, 음악의 리듬

掌 손바닥 장; 손바닥, 발바닥, 솜씨, 일을 다루는 솜씨, 수완

318. 反目嫉視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봄.

嫉 시기할 질; 시기하다, 미워하다

319. 半信半疑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함.

320. 背山臨水

땅의 형상이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면하고 있는 모습을 말함.

321. 白骨難忘

죽어 백골이 되어도 은덕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그 은혜 ~입니다.

322. 百年偕老
부부가 평생 동안 사이좋게 함께 늙어가는 것을 말함.

323. 白面書生
풋내기. 글만 읽고 세상일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

324. 百發百中
① 총·활 따위를 쏠 때마다 겨눈 곳에 다 맞음.
--------• ~의 명사수.
② 무슨 일이나 틀림없이 잘 들어맞음.
--------• 내 예상은 ~이다.

325. 百戰老將
① 수많은 싸움을 치른 노련한 장수.
② 온갖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노련한 사람. 백전노졸.

326. 百折不屈
실패를 거듭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말함.
折 꺾을 절; 꺾다, 자르다, 쪼개다, 꺾이다, 부러지다
屈 굽을 굴; 굽다, 굽히다, 물러나다, 베다, 자르다

327. 伯仲之勢
우열을 가릴수 없을 정도로 두 세력이 막상 막하임을 말함.

328. 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이르는 말.

--------• ～에 서다.
竿 장대 간; 장대, 곧은 대나무나 나무, 죽순, 범하다
頭 머리 두; 머리, 머리털, 꼭대기, 맨 앞, 시초, 우두머리, 첫째, 상위, 지혜, 재능, 근처, 근방

329. 病入膏肓
병이 몸속 깊이 들어 고치기 어렵게 됨.
膏 살찔 고; 살찌다, 살진 살, 기름진 땅
肓 명치끝 황;명치끝, 고대 의사가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생각한 곳

330. 不得要領
요령을 못 잡음
要領 :① 사물의 요긴하고 으뜸되는 골자나 줄거리.
② 경험으로 터득한 일을 하는 묘한 이치. 미립.
--------• ～이 좋다.
③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
--------• ～을 부리다.
要 구할 요; 구하다, 요구하다, 원하다, 바라다, 잡다
領 옷깃 령{영}; 옷깃, 목, 가장 요긴한 곳

331. 父傳子傳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 부자상전. 부전자승.
--------• ～이라더니 그들은 걸음걸이까지도 똑같다.

332. 夫唱婦隨
남편 주장에 아내가 따르는 것이 부부 화합의 도리라는 뜻.

333. 附和雷同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함. 뇌동부

화.
--------• ～하는 무리.

334. 粉骨碎身
①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노력함을 이르는 말.

335. 不可思議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야릇함.
--------• 20세기의 ～.

336. 不可抗力
인간의 힘과 사회 통념으로 어찌할 수 없거나 도저히 예방할 수 없는 일을 말함.

337. 不俱戴天之讐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
俱 함께 구; 함께, 함께하다, 갖추다
戴 일 대; 이다, 머리 위에 올려놓다, 느끼다, 생각하다, 널(棺)을 묶는 끈
讎 짝 수; 짝, 원수, 대거리하다, 비교하다, 갚다, 바로잡다

338. 不立文字
〔불〕 불도의 깨달음은 문자나 말로써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

339. 不世出
(주로 '불세출의'의 꼴로 쓰여)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남.

--------• ~의 영웅.

340. 不撤晝夜

밤낮을 가리지 않음

撤 거둘 철; 거두다, 치우다, 그만 두다, 폐하다

341. 不恥下問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342. 悲憤慷慨

슬프고 분함 마음

--------• 불의를 보고 ~하다.

悲 슬플 비; 슬프다, 슬픔, 비애, 슬퍼하다

憤 결낼 분; 결내다, 성을 내다, 괴로워하다, 번민하다, 흥분하다, 감정이 북받치다

慷 강개할 강; 강개하다, 의기가 북받쳐 원통해하고 슬퍼하다

慨 분개할 개; 분개하다, 개탄하다, 슬퍼하다, 탄식하다, 피로한 모양

343. 非夢似夢

깊이 잠들지도 깨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 사몽비몽.

--------• ~ 속을 헤매다.

344. 非一非再

같은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 무단결근이 ~하다

--------• 그런 일은 ~이다.

345. 氷炭之間

얼음과 숯불은 서로 그 성질이 상반되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데에서 나온 말. 즉, 서로 화합될 수 없는 것을 말함.

346. 四顧無親

의지할 데가 도무지 없음.

--------• ～의 고아.

顧 돌아볼 고; 頁-총21획; [gù]

돌아보다, 사방을 둘러보다, 응시하다, 마음에 새기다, 관찰하다, 반성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찾다, 방문하다

347. 四端七情

四端 :〔철〕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 곧 인(仁)에서 우러나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러나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러나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을 이름.

七情 : ①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기쁨(喜)·노여움(怒)·슬픔(哀)·즐거움(樂)·사랑(愛)·미움(惡)·욕심(欲). 또는 기쁨·노여움·근심(憂)·생각(思)·슬픔(悲)·놀람(驚)·두려움(恐).

②〔불〕 기쁨·성냄·근심·두려움(懼)·사랑·미움(憎)·욕심.

端 바를 단; 바르다, 곧다, 옳다, 바로잡다, 진실

348. 斯文亂賊

성리학에서, 교리를 어지럽히고 사상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斯 이 사; 이,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어조사, 則과 같은 뜻을 나타낸다, 쪼개다, 가르다

349. 四分五裂

질서없이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는 상태를 말함

裂 찢을 열{렬}; 찢다, 찢어지다, 해지다, 무너지다, 차열(車裂), 수레에 묶어 사지를 찢는 형벌의 하나

350. 沙上樓閣

기초가 약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실현 불가능한 일.

沙 모래 사;
樓 다락 누{루};다락, 다락집, 망루, 겹치다, 포개다
閣 문설주 각; 문설주, 세우다, 멈추다, 싣다

351. 獅子吼
①〔불〕부처의 설법에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고 굴복함.
②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함.
--------• ~를 토하다
--------• 그의 ~에 청중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獅 사자 사; 사자, 두 마리 난 강아지
吼 울 후; 울다, 아우성치다, 크게 노한 소리

352. 四通五達
도로나 교통망 따위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사통팔달.

353. 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354. 山紫水明
산은 자줏빛으로 선명하고 물은 맑다는 뜻으로, 산수의 경치가 썩 좋음을 이르는 말. 산명수자.

355. 山戰水戰
산에서도 싸우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세상살이를 하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었음을 비유하는 말.
--------• ~ 다 겪은 사람.

356. 山海珍味
산과 바다에서 나는 갖가지 진귀한 산물로 잘 차린 맛이 좋은 음식. 산진해미. 산진해착. 수륙진미.
--------• ~를 차리다.

357. 參羅萬像

세상 온갖 것의 일체

參 석 삼{간여할 참}; 셋(三), 간여하다, 참여하다, 섞이다, 뒤섞다, 별 이름, 빽빽하다, 인삼, 헤아리다, 뵈다, 무리, 나란하다, 가지런하지 않다

羅 새그물 라{나}; 새그물, 깁, 벌다, 벌리다, 지남철

358. 三省吳身

날마다 세 번 씩 자신을 반성함

359. 三人成虎

아무리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말.

360. 三從之義

예전에, 여자가 지켜야 했던 도리《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좇음을 이름》. 삼종(三從). 삼종의탁(三從依托). 삼종지도. 삼종지탁.

361. 過勿憚改

허물이 있음을 알았다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362. 生面不知

만나 본 적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그 관계.

--------• ~의 사람.

363. 生者必滅

〔불〕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음. *성자필쇠(盛者必衰).

364. 先見之明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365. 雪上加霜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설상가설(加雪).

--------• 가뜩이나 늦었는데 ~으로 길까지 막힌다.

366. 說往說來

서로 변론하여 말로 옥신각신함

367. 纖纖玉手

가냘프고 고운 여자의 손.

纖 가늘 섬; 가늘다, 고운 비단, 엷은 비단, 잘다, 작다

368. 城下之盟

패전국이 적군에게 항복하고 맺는 굴욕적인 강화의 맹약.

369. 笑門萬福來

웃으면 만사의 복이 찾아온다는 말

370. 束手無策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 그 고집에는 ~이다.

束 묶을 속; 묶다, 동여매다, 결박하다, 합치다, 매다, 잡아매다, 띠를 매다.

371. 送舊迎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

372. 壽福康寧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평안함.

壽 목숨 수; 목숨, 수명, 장수(長壽), 오래 살다
康 편안할 강;편안하다, 온화해지다, 즐거워하다
寧 편안할 녕{영}; 편안하다, 문안(問安)하다, 거상(居喪), 거상하다

373. 袖手傍觀

팔장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않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
--------• ~할 수 없는 문제.
袖 소매 수; 소매, 소매에 넣다, 소매 속에 숨기다

374. 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음.
釋 ; 풀다, 풀리다, 내버리다
券 : 문서 권; 문서, 어음 쪽, 어음을 쪼갠 한 쪽, 분명하다, 확실하다
ㅡ권 (劵)

375. 修身齊家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
齊 가지런할 제; 가지런하다, 같다, 같게 하다, 갖추다, 다, 똑같이, 모두

決裁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함. 재결(裁決).
--------• ~ 서류
--------• ~가 나다
--------• 사장의 ~를 받다
--------• 국장에게 ~를 올리다.
決 터질 결; 터지다,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쳐흐르다, 터놓다, 막아 놓은 것을 제거하여 물을 이끌어 내다, 갈라놓다, 열어 놓다
裁 마를 재; 마르다, 마름질하다, 옷을 짓다, 헝겊, 피륙의 토막

決濟 :①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② 증권이나 대금의 수수(授受)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
--------• 수입 대금의 ~
--------• 어음의 ~
--------• 요금이 자동으로 ~되다.
決 터질 결; 터지다,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넘쳐흐르다, 터놓다, 막아 놓은 것을 제거하여 물을 이끌어 내다, 갈라놓다, 열어 놓다
濟 건널 제; 건너다, 나루, 건지다, 빈곤이나 어려움에서 구제하다

376. 羞惡之忄

유교의 덕목인 사단 중의 하나.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남이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377. 始終一貫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종시일관.
--------• ~ 뜻을 굽히지 않다.
貫 꿸 관; 꿰다, 꿰뚫다, 착용하다, 통과하다, 적중하다, 이어지다, 경유하다, 거느리다, 돈꿰미, 엽전을 꿰던 꿰미, 지위, 관직

378. 是是非非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함.
--------• ~를 가리다
--------• ~를 따지다.

379. 識字憂患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된다는 말.

380. 神出鬼沒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 ~의 재주.

381. 心機一轉

어떤 동기로 이제까지 품었던 생각과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꿈.

--------• ~의 기회.

機 틀 기; 틀, 기계, 베틀, 용수철

轉 구를 전; 구르다, 회전하다, 굴러 옮기다, 굴러 넘어지다, 옮다, 변하다, 움직이다, 변화하다, 관직이 바뀌다, 펄럭이다, 목소리

382. 深山幽谷

깊은 산속의 으슥한 골짜기.

幽 그윽할 유; 그윽하다, 숨다, 피하여 숨다, 멀다, 아득하다

谷 골 곡; 골, 골짜기, 홈, 홈통, 좁은 길

383. 十匙一飯

열 사람이 밥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여럿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

匙 숟가락 시; 숟가락, 열쇠

飯 밥 반; 밥, 밥을 먹다, 먹이다, 기르다

384. 阿鼻叫喚

① 〔불〕 무간지옥(無間地獄)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

② 여러 사람이 참담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의 형용.

--------• 사고 현장은 ~이었다.

阿 언덕 아; 언덕, 구석, 산비탈

鼻 코 비;코, 구멍, 맞트이게 뚫은 자국, 코 꿰다, 짐승의 코에 코뚜레나 바 같은 것으로 꿰다

叫 부르짖을 규; 부르짖다, 부르다, 울다, 짐승이 울다

喚 부를 환; 부르다, 외치다, 소리치다, 불러일으키다

385. 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을 끌어 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함을 이르는 말.

--------• ~ 격으로 제 실속만 차린다.

386. 眼下無人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안중무인(眼中無人).

--------• 돈을 좀 벌더니 ~이 되었다.

387. 安貧樂道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道)를 즐김.

--------• 낙향하여 ~하며 지내고 있다.

388. 弱冠

① 남자 나이 20세의 일컬음.

--------• ~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다.

② 젊은 나이. 약년(弱年).

--------• ~으로 이름을 크게 떨치다.

冠 갓 관; 갓, 관, 벼, 성(姓)

389. 藥房甘草

한약에 꼭 들어가는 감초처럼 어느 자리에나 꼭 참석해 간섭하거나 재미를 북돋아주는 사람을 말함.

390. 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

391. 億兆蒼生

수많은 백성을 말함.

蒼 푸를 창; 푸르다, 푸른 빛깔, 우거지다, 무성해지다, 늙다, 늙은 모양

392. 焉敢生忄

어찌 감히 그럼 마음을 먹을 수 있으랴 라는 뜻.

393. 言語道斷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는 뜻.

394. 嚴妻侍下
아내에게 쥐어 사는 사람을 조롱하는 말

395. 與民同樂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김.

396. 力拔山氣蓋世
산을 뽑아 던질 만하고 세상을 덮을 만한 기력의 웅대함을 말함.

397. 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함.

398. 吮疽之仁
부하의 종기를 빨아준 노나라 장수 오기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 정성을 다해 사람을 챙겨주나 사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식적 행위를 말할 때 비유하는 말.
吮 빨 연; 빨다, 핥다
疽 : 등창 저;등창, 악성 종기, 가려운 병, 침저

399. 炎涼世態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권세가 다하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을 두고 하는 말.

400. 拈華微笑
〔불〕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을 때 마하가섭(摩訶迦葉)

만이 그 뜻을 깨닫고 미소 지었다는 데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즉, 이심전심(以心傳心)·교외별전(敎外別傳)의 뜻. 염화시중(拈華示衆).
拈 집을 념{염,접}; 집다, 손가락으로 집어 비틀다, 집어 들다
華 꽃 화; 꽃, 꽃이 피다, 색채, 빛

401. 榮枯盛衰

사람의 일생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뜻.
--------• ~를 거듭하다.
榮 꽃 영; 꽃, 꽃이 피다, 성하다, 영화, 영달
枯 마를 고; 마르다, 초목이 마르다, 물이 마르다, 야위다, 수척하다, 죽다, 비다, 오래 되다
盛 담을 성; 담다, 채우다, 세상에 차려 놓은 음식, 바리, 주발
衰 쇠할 쇠; 쇠하다, 약해지다, 작아지다, 늙다, 여위다, 줄다, 게으르다, 세력이 없어지다, 줄다, 줄이다, 차(差), 등차(等差)

402. 五車之書

다섯 수레에 실을 만큼 많은 책

403. 寤寐不忘

근심과 걱정 혹은 그리움 때문에 자나 깨나 잊지 못하는 것을 말함.
寤 깰 오; 깨다, 잠에서 깨다, 깨닫다(悟), 꿈
寐 잠잘 매

404. 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로, 공교롭게 남의 의심을 받게 됨을 말함.

405. 外柔內剛

겉은 부드럽고 순한 듯하나 속은 꿋꿋하고 곧음. 내강외유.
↔외강내유.

406. 要領不得

말이나 글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없음.

407. 樂山樂水

仁者는 산을 좋아하고 智者는 물을 좋아한다는 뜻.(仁者樂山, 智者樂水)
樂 : 풍류 악, 즐길 락, 좋아할 요

408. 欲速不達

일을 서두르면 오히려 그르친다는 말.

409. 牛耳讀經

'쇠귀에 경 읽기'의 뜻으로,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

410. 雨後竹筍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많이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일어남의 비유.

411. 遠族近隣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뜻.

412. 韋編三絶

책 끈이 세 번 끊어질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음을 말함.
韋 : 다룸가죽 위; 다룸가죽, 무두질한 가죽, 부드러운 것, 어기다
編 : 엮을 편; 엮다, 기록하다, 이어놓다, 맺다, 얽다, 짜다, 책, 책을 맨 끈

413. 雲泥之差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 간의 매우 심한 차이를 이르는 말. 천양지차.
泥 진흙 니{이}; 진흙, 진창, 흐리다, 더렵혀지고 썩다

414. 流芳百世

꽃다운 이름을 후대에 길이 남김

芳 꽃다울 방; 꽃답다, 향기풀, 향기, 좋은 냄새, 명성

414. 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415. 唯我獨尊

①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이 잘났다고 뽐내는 태도.

--------• ~식의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②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준말.

唯 오직 유; 오직, 발어사, 비록-하더라도(雖)

416. 有耶無耶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덩함. 흐지부지하게 처리함.

--------• ~로 얼버무리다

--------• 사건이 ~ 처리되다

--------• 일을 ~하게 처리하다.

耶 어조사 야; 어조사, 어세를 돕는 조사, 의문 조사, 아버지를 부르는 말, 옛 명검(名劍) 이름

417. 流言蜚語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뜬소문. 부언낭설. 부언유설.

蜚 바퀴 비; 바퀴, 메뚜기, 풍뎅이, 곤충 이름, 향낭자, 짐승 이름

418. 悠悠自適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고 마음 편히 삶.

--------• 은퇴하고 ~의 생애를 보내다.

悠 멀 유; 멀다, 걱정하다, 생각하다

適 갈 적; 가다, 이르다, 도달하다, 따르다, 시집가다, 만나다, 조우하다, 당연하다

419. 有終之美

끝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는 뜻.

420. 肉頭文字

음담패설을 두고 하는 말

421. 遠交近攻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이웃 나라를 공략하는 일《중국 전국 시대에 범저(范雎)가 주창한 외교 정책》.

422. 月下氷人

〔중국 진(晉)나라의 삭담(索紞)이 얼음 위에서 얼음 아래의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고사에서〕 중매인. 월하노인.

【준말 앞에】빙인.

423. 隱忍自重

마음속으로 참고 견디며 몸가짐을 조심함.

424. 異口同聲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 이구동음.

--------• ~으로 칭찬하다.

425. 以熱治熱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힘은 힘으로 물리침을 이르는 말.

426. 二律背反

서로 모순 되는 주제가 동시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를 말함.

427. 因果應報

〔불〕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갚음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報 갚을 보; 갚다, 갚음, 알리다

428. 人面獸心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으로, 마음이나 행동이 몹시 흉악함을 이르는 말.

429. 人命在天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말.

430. 人山人海
사람들이 많이 군집해 있을 때 하는 말.

431. 仁者樂山
덕이 있는 사람,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말

432. 仁者無敵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433. 一刻如三秋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함을 비유한 말.
刻 새길 각; 새기다, 새김, 벗기다

434. 日久月深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진다는 말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하다는 말

435. 一望無際
아득하게 넓어 끝이 보이지 않는 정경을 표현할 때 쓰는 말.
際 : 사이 제; 사이, 두 사물의 중간, 교제(交際), 때, 기회, 시기, 정도, 가장자리, 경계(境界), 방향, 만나다, 마주치다

436. 一絲不亂

질서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말함.

437. 一瀉千里

강물이 빨라, 한 번 흘러 천 리에 다다른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 거침없이 빨리 진행됨을 이르는 말.

--------• 안건이 ~로 처리되다.

瀉 쏟을 사; 쏟다, 물을 쏟아 붓다, 물이 흐르다, 물을 흐르게 하다

438. 一魚濁水

한 마리의 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해를 입게 됨의 비유.

439. 一以貫之

한 이치로 모든 일을 꿰뚫음.

440. 一字千金

한 글자가 천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

441. 古書畵

오래된 책과 그림등을 말함.

442. 一場春夢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榮華)나 덧없는 일을 비유한 말.

443. 日就月將

날로 달로 진보함. 일취. 일장월취. 장취.

--------• 국력이 ~으로 뻗어 나가다.

就 이룰 취; 이루다, 나아가다, 좇다, 따르다

將 장차 장; 장차, 막-하려 한다, 마땅히-하여야 한다, 어찌(何), 오히려

444. 一敗塗地

여지없이 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됨.

--------• ~를 당하다

--------• ~의 고배를 마시다.

塗 진흙 도; 진흙, 칠하다, 길

445. 一觸卽發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급한 상태.

--------• ~의 위기.

觸 닿을 촉; 닿다, 부딪치다, 받다, 떠받다, 범하다, 감동하다, 더럽히다,

446. 一寸光陰

매우 짧은 시간을 말함.

447. 一筆揮之

단숨에 글자를 시원하고 힘차게 쓴 붓놀림.

揮 ; 휘두를 휘; 휘두르다, 떨치다, 지휘하다, 지시하다

448. 立錐之志

사람이 많이 모여 조금도 빈틈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錐 : 송곳 추; 송곳, 작은 구멍을 뚫는 연장, 바늘, 작은 화살

449. 自家撞着

같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의 앞뒤가 어긋나 모순됨. 자기모순. 모순당착.

--------• ~에 빠지다.

撞 칠 당; 치다, 두드리다, 쳐서 찌르다, 부딪치다

着 붙을 착{저}; 붙다, 입다, 옷을 입다, 신을 신다

450. 自繩自縛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

繩 줄 승; 줄, 새끼, 먹줄, 법도

縛 묶을 박; 묶다, 동여매다, 감다, 자유를 속박하다, 포승(捕繩), 복토

451. 自暴自棄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음.

--------• ~에 빠지다.

暴 사나울 포; 사납다, 해치다, 해롭게 하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棄 버릴 기; 버리다, 내버리다, 그만두다, 폐하다, 꺼리어 멀리하다

452. 作心三日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함《결심이 굳지 못하다는 말》.

453. 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

--------• ~도 유분수지.

荷 연 하; 연(蓮), 책망하다, 규탄하다, 번거롭다

杖 지팡이 장; 지팡이, 짚다, 지팡이를 짚다, 잡다, 쥐다

454. 適材適所

마땅한 인재를 마땅한 자리에 씀.

--------• 직원들을 ~에 배치하다.

適 : 갈 적; 가다, 이르다, 도달하다, 따르다, 시집가다, 만나다, 조우하다, 당연하다

455. 電光石火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란 뜻으로)

① 극히 짧은 시간.

--------• ~처럼 뇌리를 스쳐간 불길한 예감

--------• ~처럼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
② 아주 신속한 동작.
--------• ~와 같은 편치를 날리다.

456. 前代未聞

이제까지 들은 적이 없음. 전고미문.

457. 輾轉反側

누워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잠 못 이룸을 말함.
輾 구를 전; 구르다, 반전하다, 타작하다, 연자매
轉 구를 전; 구르다, 회전하다, 굴러 옮기다, 굴러 넘어지다, 옮다, 변하다, 움직이다, 변화하다, 관직이 바뀌다, 펄럭이다, 목소리
側 곁 측; 곁, 옆, 가

458. 轉禍爲福

재화(災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됨.
--------• 위기를 ~의 계기로 삼다.

459. 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 ~의 한을 품다.

460. 漸入佳境

차차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감.
--------• ~의 경지로 들어가다
--------• 경치는 갈수록 ~이다.
漸 점점 점; 점점, 차차, 차츰 나아가다, 천천히 움직이다

461. 頂門一針

정수리에 놓는 침이란 뜻으로, 남의 결점을 똑바로 찌른 따끔한 비판을 말한다.

頂 : 정수리 정; 정수리, 머리, 꼭대기

462. 朝令暮改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463. 朝聞道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었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

464. 鳥足之血

새 발의 피라는 뜻으로, 극히 적은 분량의 비유.

465. 坐井觀天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본다는 뜻으로, 견문이 매우 좁음을 이르는 말.

466. 晝耕夜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

467. 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한층 더 장려함을 이르는 말.

468. 走馬看山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看 볼 간; 보다, 손을 이마에 얹고 바라보다, 방문하다, 지키다, 번서다

469. 竹杖芒鞵

대나무 지팡이에 짚신이란 뜻으로 여행을 떠날 때의 간편한 차림을 말함.

470. 晝夜不息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함,

息 : 숨 쉴 식; 숨 쉬다, 숨, 호흡, 숨 한 번 쉬는 동안, 쉬다

471. 重言復言

했던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함.

472. 支離滅裂

갈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됨.

--------• 기습을 당한 적군은 ~하고 말았다

--------• 국론이 ~되다.

支 가를 지; 가르다, 가지, 지탱하다

離 떼놓을 리{이}; 떼놓다, 가르다, 끊다, 나누다, 열다, 헤어지다, 물러나다, 떠나가다, 배반하다, 붙다, 부착하다, 나란히 줄서다

滅 멸망할 멸; 멸망하다, 멸하다, 없어지다, 제거하다, 끄다, 불이 꺼지다

裂 찢을 렬{열};찢다, 찢어지다, 해지다, 무너지다, 차열(車裂), 수레에 묶어 사지를 찢는 형벌의 하나

473. 芝蘭之交

고상한 벗 사이의 교제를 말함.

474. 智者樂水

아는 사람은 사리에 통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으므로 물을 좋아함.

475. 珍羞盛饌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 ~을 차리다.
羞 바칠 수; 바치다, 드리다, 맛있는 음식, 음식물
盛 담을 성; 담다, 채우다, 세상에 차려 놓은 음식, 바리, 주발
饌 반찬 찬; 반찬, 밥에 갖추어 먹는 여러 가지 음식, 차리다, 음식을 차려내다, 먹다, 또 음식

476. 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처지를 말함.

477. 滄海一粟

넓고 큰 바다 가운데 한 알의 좁쌀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거나 넓은 것 속의 극히 하찮고 작은 물건을 이르는 말.
滄 찰 창; 차다, 싸늘하다, 강 이름, 푸르다(蒼)
粟 조 속; 조, 오곡의 총칭, 벼, 찧지 아니한 곡식

478. 天方地軸

행동이 얌전하지 못하고 소란스러움을 말함.
①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일.
② 너무 급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는 일.
軸 굴대 축; 굴대, 북, 베틀 기구의 한 가지, 두루마리

479. 泉石膏肓

산수 자연을 사랑함이 지나쳐 고질병과 같음을 말함.
천석ㅡ고황 (泉石膏肓) [ㅡ꼬ㅡ]

【명사】
산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정도에 지나쳐 마치 불치의 고질과 같다는 뜻으로, 벼슬길에 나서지 않음을 이르는 말. 연하고질(煙霞痼疾).
泉 샘 천;샘, 땅속에서 솟는 물, 돈
膏 살찔 고; 살찌다, 살진 살, 기름진 땅

肓 명치끝 황;명치끝, 고대 의사가 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 생각한 곳

480. 天生緣分

하늘에서 정해준 남녀 간의 연분
緣 : 가장자리 연, 말미암을 연

481. 天人共怒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의 비유. 신인(神人)공노.

482. 千載一遇

천 년에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이르는 말.
載 실을 재; 싣다, 실어서 운반하다, 기재하다, 머리에 얹다, 수레에 오르다, 탈것, 수레.배.썰매 따위
遇 만날 우;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뜻이 합치하다, 때를 만나다, 등용되다, 알현, 회합, 맞서다, 상대하다

483. 千篇一律

① 여러 시문의 격조가 변화 없이 비슷비슷함.
② 사물이 모두 비슷해 변화가 없음.

484. 徹頭徹尾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 ~한 사람
--------• ~한 조사
--------•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사전 준비를 하다
徹 통할 철; 통하다, 뚫다, 환하다, 밝다

485. 草根木皮

풀뿌리와 나무껍질. 가난하여 약소한 음식으로 연명할 때 초근목피로 표현함.

486. 草露人生

풀잎의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을 말함.

487. 焦眉之急

눈썹이 타면 급히 끄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매우 다급한 일을 일컬음.

焦 : 그을릴 초; 그을리다, 애타다, 애태우다, 들피지다, 지치다

488. 千紫萬紅

울긋불긋한 여러 가지 꽃의 빛깔. 또는 그런 빛깔의 꽃.

489. 靑山流水

막힘없이 말을 잘 함.

490. 秋風落葉

①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② 세력이나 형세가 갑자기 기울거나 시듦을 비유한 말.

491. 出嫁外人

시집간 딸은 친정과는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뜻.

嫁 시집갈 가; 시집가다, 떠넘기다, 가다, 향하여 가다

外 밖 외; 夕-총5획; [wài]

492. 忠言逆於耳

충고하는 좋은 말은 귀에는 거슬릴 수 있다는 말.

493. 醉生夢死

술에 취해 자는 동안에 꾸는 꿈 속에서 살고 죽는다는 뜻으로, 한평생을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흐리멍덩하게 살아감의 비유.

494. 七顚八起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노력함을 이르는 말.

--------• ~의 정신

--------• ~해서 성공했다.

495. 針小棒大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불려 떠벌림의 비유.

496. 七去之惡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곧,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삼불거(三不去).

1. 부모의 삼년상을 같이 한 경우
2. 시집올 때 고생 끝에 살림을 일구었을 경우
3. 내쫓아도 갈 곳이 없을 때는 아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497. 七縱七擒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사로잡는다는 뜻으로,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縱 늘어질 종;늘어지다, 용서하다, 놓다, 활을 쏘다, 풀다, 쫓다, 불을 놓다

擒 사로잡을 금; 사로잡다, 생포하다

498. 快刀亂麻

잘 드는 칼로 어지럽게 뒤엉킨 삼 가닥을 자른다는 뜻으로, 어지럽게 뒤얽힌 일을 재빠르고 명쾌하게 처리함의 비유.

--------• 산적한 문제들을 ~로 처리하다.

快 쾌할 쾌; 쾌하다, 상쾌하다, 병세가 좋아지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499. 卓上空論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의논

500. 貪官汚吏

탐욕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501. 泰然自若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평온하고 천연스러운 태도를 말함.

502. 兎死狗烹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필요없게 되어 결국 삶아 먹히게 된다는 말로 쓸모없으면 사정없이 처단됨을 말함.

503. 波瀾曲折

생활이나 일의 진행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 또는 그런 변화.

--------• ~을 겪다.

波 물결 파; 물결, 물결이 일다, 파도가 일어나다, 주름

瀾 물결 란{난}; 물결, 물결이 일다, 눈물이 흐르는 모양

曲 굽을 곡; 굽다, 휘다, 굽히다, 휘게 하다,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다, 사악하다

折 꺾을 절; 꺾다, 자르다, 쪼개다, 꺾이다, 부러지다

504. 破顔大笑

얼굴을 환히 열고 크게 웃음.

505. 敗家亡身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506. 平地風波

평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풍파라는 뜻으로, 뜻밖에 분쟁이 일어남의 비유.

507. 抱腹絶倒

배를 움켜쥐고 쓰러질 정도로 크게 웃음

抱 안을 포; 안다, 품다, 품, 품에 안기다, 가슴, 흉부

倒 넘어질 도; 넘어지다, 죽다, 거꾸로

508. 風雨對牀

바람과 비가 서로 마주 대하다. 즉 형제가 서로 만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牀 형상 상; 형상, 모양, 용모, 형용하다, 문서

509. 風前燈火

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말.

--------• ~와 같은 나라의 운명.

② 사물이 덧없음을 가리키는 말.

510. 風餐露宿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한데에서 먹고 잔다는 뜻으로, 객지에서 겪는 모진 고생을 이르는 말.

餐 먹을 찬; 먹다, 음식물, 곁두리, 끼니 외에 참참이 먹는 음식

511. 皮骨相接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썩 마름.

512. 匹夫匹婦

평범한 남녀.

-------• ~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다.

513. 鶴首苦待

몹시 애타게 기다릴 때를 말함.

514. 緘口無言

입을 다물고 말이 없음.

緘 봉할 함; 봉하다, 새끼, 줄, 함을 묶는 끈

515. 咸興差使

심부름을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는 말.

516. 合從連橫

중국 전국시대 때 소진의 합종설과 장의의 연횡설을 말하는 것으로 약소국의 강대국인 진에 대한 외교 방침을 말한다.

517. 偕老同穴

부부의 금슬이 좋아서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히고자 함을 말한다.

518. 行雲流水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이란 뜻으로 일이 막힘이 없을 때 혹은 마음씨가 시원스러울 때 혹은 일정한 형태가 없이 사물이 변할 때 쓰는 말.

519. 虛張聲勢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떠벌림.
--------• ~를 일삼다.
張 베풀 장; 베풀다, 매다, 넓히다, 크게 하다

520. 糊口之策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책. 호구지계. 호구책.
--------• ~을 마련하다.
糊 풀 호; 풀, 붙이는 풀, 끈끈하다, 입에 풀칠하다, 살아가다

521. 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음. 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김.

522. 紅爐點雪
화로 위의 눈송이란 뜻. 큰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은 아무 소용없을 때 혹은 어떤 의혹이 일시에 없어짐을 말함.

523. 畵蛇添足
뱀 그림에 다리를 그렸다는 뜻으로 쓸데없이 군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침을 말함. 蛇足이라고도 함

524. 畵中之餠
그림의 떡

525. 化燭洞房
첫날 밤, 신랑 신부가 자는 방

526. 換骨奪胎
①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 짜임새와 수법이 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② 사람이 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딴사람처럼 됨.

換 바꿀 환; 바꾸다, 주고받고 하다, 바뀌다, 교체되다, 고치다, 고쳐지다
奪 빼앗을 탈;빼앗다, 잃다, 없어지다, 탈진하다
胎 아이 밸 태; 아이 배다, 잉부(孕婦), 태아

527. 膾炙人口

'膾炙'란 고기를 회치고 구운 것을 말한 것으로 뭇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묘사한 말이다.
膾 회 회; 회, 잘게 저민 날고기, 회치다
炙 고기 구울 자{적}; 고기를 굽다, 굽다, 구운 고기, 가까이하다, 친히 가르침을 받다.

528. 橫說竪說

생각나는 대로 아무 조리 없이 함부로 마구 늘어놓는 말
竪 더벅머리 수; 더벅머리, 내시, 천하다, 비루하다, 豎의 俗字

529. 厚顔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

530. 興盡悲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온다는 뜻으로 세상의 기쁨과 슬픔이 돌고 돎을 말함.

531. 喜色滿面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함.
--------• 합격 통지를 받고 ~해지다.